

아이돌봄 신청 많고 인력은 부족 '맘편한 세상' 정부가 적극 나서야

#광주에서 2살 아들을 키우는 서모(여·38)씨는 "아이돌보미가 손이 많이 가는 영아를 꺼려 돌보미를 구하지 못하고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며 "돌보미가 원하는 근무 시간대나 아이 나이가 있어 돌보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환경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순천에서 맞벌이하는 정모(여·43)씨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인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에 겹치지 않아야 돌보미 배정이 더 빨리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작 맞벌이 부부에게 돌보미가 가장 필요한 시간은 등·하원 시간인데,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사설 돌보미 선생님을 따로 구했다. 사설보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시급이 훨씬 저렴한데도 이용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아이돌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용 가구 수와 지원 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인력인 '아이돌보미'(돌보미) 숫자는 늘지 않으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 일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신청 가구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12

광주·전남 이용가구 급증
인력 부족에 대기일수 늘어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확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개인 부담 이용료는 기본형 돌봄 기준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당 1744원~1만1630원이다. 돌보미 인건비는 올해 기준 기본 시급 1만110원이며, 가사 등을 병행하는 '종합형'은 3480원, 질병 감염 아동 돌봄은 3040원 추가 수당이 책정된다.

맞벌이 부부 등 보호자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가정에서 돌보미가 파견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호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돌보미를 연계(매칭)하는 구조인데, 선호 시간·아동 연령 등이 비슷한 경우 매칭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광주·전남도의 설명이다.

광주시의 경우 이용 가구 수는 ▲2021년 2031가구 ▲2022년 2280가구 ▲2023년 2519가구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예산 역시 ▲2021년 133억원 ▲2022년 149억원 ▲2023년 188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돌보미는 2021년 931명, 2022년 973명, 2023년 1053명으로 3년 새 120여명만 증원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 역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 신청 가구 수는 3693가구로, 2022년 3513가구보다 5.1% 늘었다. 2021년 3194가구보다 15.7% 증가했다.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예산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2021년 207억원이던 사업 예산은 2022년 237억원, 2023년 291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돌보미는 2021년 1159명, 2022년 1167명, 2023년 1199명으로, 늘어난 인원은 40명뿐이었다.

광주시·전남도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계획된 95명 채용 중 상반기 22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 신규 양성 23명, 단축 양성 39명, 수시 채용 13명 등 총 7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올해 계획된 140명 채용 인원 중 상반기 39명 채용을 마쳤고 하반기에 일반 양성·단축 양성·수시 채용 구분 없이 10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인 부모와 돌보미 간 매칭이 100% 이뤄지지 않다 보니 대기에 대한 불만족이 나오는 것 같다"며 "기존 교육 기관 1개소에서 내년에는 2개소로 늘려 돌보미 양성을 최대한 많이 해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돌보미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서부권(영광)에만 있던 돌보미 교육 기관을 동부권(순천)에 추가로 지정해 양성 폭을 늘리기로 했다"며 "각 시·군 아이돌봄 기관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게끔 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용해의 들판' 광주비엔날레 작품 첫 선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20여일 앞둔 19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작품 해포식이 개최됐다. 이날 공개된 미국의 맥스 후퍼 슈니더의 2024년 설치작품 '용해의 들판(LYSIS FIELD)'은 동식물과 비인간 개체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표현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료공백 해소 '산 넘어 산'

조선대병원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간호사까지 파업 위기감 고조

광주 상급병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해 의료공백이 더 커지고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광주·전남 수련병원에서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 등 의료인까지 파업에 나서면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상급병원들이 전공의 이탈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주는 힘든 것으로 예상돼 위기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19일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한다.

노조는 병원 측에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

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임금동결을 고수해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간호사 파견근무 금지, 토요일 외래 진료 금지, 야간근무개선, 자녀돌봄휴가 확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부위 명확화 등 요구사항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조선대병원 노조는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지만 합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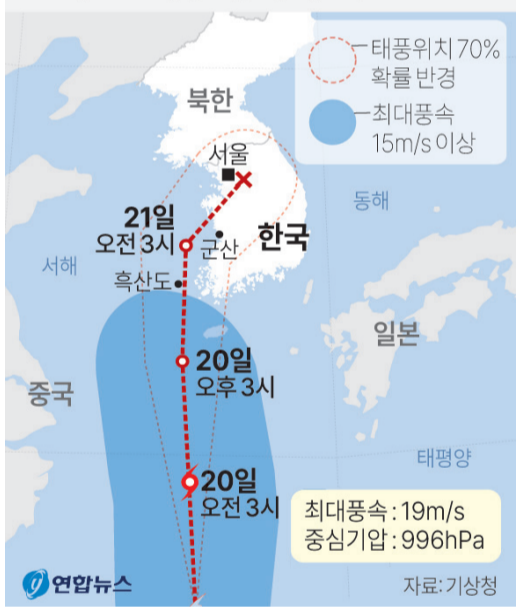
노조는 쟁의찬반 투표결과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으면 오는 29일부터 파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조합에서는 파업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됐지만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는 점에서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9호태풍 '종다리' 예상 진로



태풍 종다리 영향권 ... 광주·전남 내일까지 30~80mm 비

광주·전남이 20일부터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권에 들겠다. 태풍으로 일부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지만 폭염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오전부터 광주·전남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21일까지 30~80mm의 비가 내리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19일 예보했다. 특히 20일 오후부터 21일 아침사이 일부지역에는 시간당 30~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다. 비는 22일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태풍 종다리는 19일 오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강풍 반경 240km, 초속 19m의 속도로 북진 중이다. 기상청은 태풍이 20일 오후 3시에 제주 서귀포 남서

쪽 해상을 지나 21일 새벽 전북 군산 서남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초속 20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19일 오전 서해면바다에는 태풍예비특보가 내려졌고,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